



자율안전시스템이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 안전에  
 강산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LNG시대가 본격화된 '93년,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에서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얼마전 무재해 10배를 달성하고 15배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에는 국내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을 책임져 온 천연가스 설비 전문 기술회사로 -160℃의 초저온의 LNG 자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유지·보수·안전점검은 동상, 화상, 화재, 폭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상황에서 무재해 10배 달성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 크다 할 수 있다.

이 곳의 총괄책임자인 고재창 소장은 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안전과 함께 생활해온 직원들에게 돌리며, 자율안전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한다.

### 1. 자율안전시스템의 필요성

한국가스기술공사는 IMF 이전 방대한 안전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워진 경제로 구조조정에 의한 기구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과거 규제를 위한 타율적인 안전에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자율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재의 자율안전시스템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자율안전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원들의 의식인데, 가스라는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평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고, 여기에 올바른 직장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타사 및 해외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한국가스기술공사만의 안전기법으로 재정립을 하는 등 꾸준한 노력과 적극적인 직원 참여가 있어 가능했다.

### 2. 대표하는 자율안전

#### 가. 표준정비절차 자율 이행

주요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 설치하다 보니 유지관리에 있어 선진 해외기술이 필요하였다.

이를 배우기 위해 단계별 제작사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외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이곳 사업소만의 표준절차서를 재정립하였고, '97년도에 전설비에 대한 정비절차서(LNG 고압펌프외 135종)를 제정하여 설비의 분해정비 작업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이 곳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 하나로 습관처럼 절차서를 따랐고, 이는 신기술 도입 및 설비개선에 따른 정비절차 변화에 따라

매년 50여건을 재개정하면서 평택기지사업소에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표준정비절차서의 내용에서도 일반적인 작업절차 외에 각 작업단계별로 안전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기술 Know-how를 전직원이 공유토록하여 작업시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모든 작업의 작업허가 조건에 안전작업절차를 요구토록하여 작업자가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나. 단위작업별 TBM(Tool Box Meeting)

초저온 LNG설비의 정비는 설비자체 위험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작업자의 화상 등 공정상 유체로 인한 위험요소까지 차단해야하기 때문에 작업공정별로 각기 다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96년도부터 TBM을 도입·시행하여 정착화시켜 자율안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입초기에는 위험작업에 한해서 TBM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1년 이후 일반작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매년 1,000여건의 TBM을 시행하였고, 모든 작업에서 위험요인을 배제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TBM 활동은 단위작업별로 선임된 작업책임자 가 리더가 되어 현장작업전에 작업자 전원이 위험요인에 대해 의견을 자율적으로 도출토록하는 방식의 소그룹 안전활동이다.




### 다. 작업방법 및 환경개선

현장 안전작업환경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의지가 모든 업무에 우선하고 있다. 간부직원의 설비지역별 안전 점검, 관리감독자 현장안전점검, 전직원의 작업환

경개선의견 수렴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잠재 위험요인 발굴·개선하는데 다양한 Channel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50건 이상의 개선 실적을 보이며, 2004년과 2005년 각각 71건, 8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관리감독자를 비롯해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이룩할 수 없는 실적이다. 앞으로도 목표관리에 의한 자율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 3. 맺음말

사람에게 편리한 것은 위험이 수반되는데 LNG도 그렇다. 그러나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 해도, 이를 알고 안전하게 취급한다면 그 보다 실용적이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 고재창 소장이 말하는 안전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안전하게 대처한 작업이 무재해 10배의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노후화 되어가는 생산설비와 설비증설에 따른 변화에 철저히 대처하고 지속적인 재정립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 앞으로 10년 후 다시 오늘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